

한국대담회 활동기 1



이정웅

한국대담회 전 사무국장

1981년부터 본회의 성장기를 거쳐 도약기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종천 초대 전임 사무국장이 오랜 병고 끝에 1986년 7월에 유명을 달리하자 6개월의 공백기를 거쳐 1987년 1월 본인이 그를 이어 제2대 전임 사무국장으로 2000년 2월까지 13년간 봉직하면서 2000년대로 접어든다. 따라

서 지난 50년은 본인의 재임기간과 그 전후로 구분되어 50년의 나이테가 형성된다. 그러기에 여기서 다루는 한국대담회 활동회고는 본인이 봉직하였던 13년간의 기록과 전언을 바탕으로 봉직 이전의 14년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1. 국제대담회 (이하 ICOLD) 개관

1.1 창립

1926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세계동력회의(WPC: World Power Conference, 현재는 WEC: World Energy Conference로 개칭)에 참석 중이던 뜻있는 선각자들은 동력 창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담에 관한 기술향상을 위한 별도의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석 중인 프랑스 대표에게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위임하게 된다. 1928년 7월 6일 파리에서 개최된 IUPDEP(International Union of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Electric Power)에 참석 중인 프랑스, 루

마니아, 영국, 스위스, 미국, 이태리 등 6개국 대표들이 발기인이 되어 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사무국을 파리에 두면서 ICOLD가 창립된다.

1930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WPC회의에서 부터 이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명칭도 'ICOLD of WPC'로 하고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다가 1965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35차 집행위원회에서 WPC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오늘의 ICOLD가 된다.

1.2 회원국

회원국은 창립발의 국가를 필두로 프랑스(1928

년), 노르웨이(1930년), 스위스(1930년), 영국(1930년), 슬로바키아(1930년), 인도(1930년), 인도네시아(1930년), 체코(1930년), 오스트리아(1931년), 독일(1931년), 일본(1931년), 모로코(1931년), 루마니아(1931년), 스웨덴(1931년), 미국(1932년), 알제리(1932년), 러시아(1932년), 폴란드(1932년), 튀니시아(1932년) 등 선발 국가를 중심으로 참여국을 늘리다가 1972년 우리나라도 67번째 회원국이 된다.

그 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1974년), 북한(1988년) 등이 가입했으나 북한은 1993년부터 불참하더니 1995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63차 집행위원회에서 연회비 체납으로 제명되어 아직도 복권되지 못한 채 81개국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며 베트남 등이 가입하면서 현재 104개 회원국에서 10,000여 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1.3 연차회의 / 총회 / 기술분과위원회

매년 열리는 연차회의(Annual Meeting: 당초에는 '집행위원회; Executive Meeting'이라 하였음)에서는 총재단 선출, 연차회의 및 총회 개최지 선정, 신규회원국의 가입 및 제명(3년 이상 연회비 미납), 예결산 등 주요 회무와 기술분과위원회 활동 및 주요 댐 관련 시설의 연수여행(Study Tour)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년 55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국이 선정한 주제로 1일 기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참가자의 기술적 욕구에 부응토록 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편 젊은 엔지니어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35세 이하의 참가자에게 등록비의 25%를 감액하여주는 인센티브제도가 199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66차 연차회의부터 도입된다. 1931년 런던에서의 1차 연차회의를 시작하여 2004년에는 한국에서의 72차 연차회의, 2010년에는 베트남에서의 78차 연차회의, 2012년에는 일본에서 80차 연차회의를 겸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연차회의와 함께 매3년마다 열리는 기술총회(Congress)에서는 4개 주제에 관한 논문을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택된 논문에 한하여 심포지엄형식으로 발표토록 하고, 제출된 모든 논문을 2,000페이지에 달하는 총회 논문집으로 발간, 회원국 및 개인회원에게 할애한다. 3차 연차회의와 함께 1차 총회는 193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시작하여 24차 총회를 2012년 일본이 처음으로 교토에서 개최하기에 이른다.

특정 관심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한 기술분과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회원국으로부터 추천받은 20여 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보통 6년간, 또는 존치기간을 더 연장해가면서 소정의 과업을 수행하여 최종기술보고서를 Bulletin으로 발간하여 회원국에 할애한다. 또한 특수과업을 수행키 위하여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999년에 22개이던 동 위원회는 현재 28개에 이르며 190여 개의 Bulletin을 발간하였다.

1.4 총재단(President & Vice Presidents)

3년 임기의 총재와 부총재는 각 지역별로 즉, 유럽(2명),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각 1명과 총재 출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후보 중에서 선출된 6차석(6th Post) 1인을 포함한 6명으로, 매년 2명의 부총재를 교체하고 있다. 초대 총재는 프랑스의 G. Mercier가 1931~1937년에 걸쳐 중임하였으며, 대부분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에서 독점하여 오다가 아시아지역에서도 처음으로 2009~2012년에 중국의 Jinsheng JIA가 총재로 선출된다. 현재는 프랑스대담회의 Michel Lino가 지난 프랑스 마르세유 연차회의에서 선출되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회무의 총괄 및 집행을 맡고 있는 실세의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중앙사무국이 있는 프랑

스 출신인사가 많아왔다. 초대 사무총장은 A. Gen-thial(1931~1937), 우리나라가 가입한 당시에는 A. Janod(1968~1978),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는 무려 16년을 봉직한 J. Cotillon(1979~1995)과 J. Lecornu(1996~2001)가, 현재는 M. De Vivo가 맡고 있다.

1. 5 지역 간 협력기구(Regional Club)

ICOLD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코자 유 럽을 필두로 미주, 아프리카지역의 비슷한 환경과 공 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별 모임이 조직되어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교환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현재 ICOLD에 신고되어 활동 중인 모임은 다음과 같다.

- European ICOLD Club: 1995년 창설, 21개국 참여
- INCA(Association of ICOLD National Commit-

tee of the Americas): 2000년 창설, 14개국 참여
 - AAA(Africa, Australia Association of ICOLD National Committee): 2000년 창설, 14개국 참여
 - Committee: 2002년 창설, 17개국 참여
 - East Asia Dam Conference(EADC): 2004년 창 설,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순차적으로 심포지엄 개최

1. 6 「Newsletter」

ICOLD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의 사무국과 Circular Letter(C/L)를 통하여 공식문서 행위를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Newsletter」를 연 1~2회 발간하여 ICOLD의 최근 소식과 기사를 실고 있으며 2022년 「Newsletter」 No. 20을 발간하였다.

- 회장: 이희준(조선전업 사장),
- 부회장: 원태상
- 이사: 이성(상임), 한을출(상임), 안수한(상임), 최인성, 이상련
- 감사: 최경렬
- 간사: 최종완, 이경보

그러나 이듬해 4·19 등 사회적 혼란으로 1960년 5월 9일에서야 뒤늦게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동년 5월 31일에 법인등기를 마치고, 이어 6월 1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ICOLD 가입 추진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1961년 2월 2일에 ICOLD 가입신청서를 이희준 회장명의로 중앙사무국에 보냈으나, 이어지는 5·16 등 정치불안 등으로 ICOLD 가입은 아쉽게도 불발되고 만다. 1992년 본회 「20년사」 발간을 위

2. 한국대담회 개관

2. 1 국제대언제기구(國際大堰堤機構) 한국위원회의 탄생과 소멸

우리나라의 ICOLD 가입 시도는 1959년 6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계의 원태상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토목공학 전공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내무부, 상공부, 서울시와 조선전업(지금의 한국전력)을 대표한 14명의 전문가들의 발의로 열린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구성하게 된다.

하여 김영택 전 부회장이 혹시나 숨겨진 비화를 알아낼까 하고 노환으로 요양 중인 이준희 당시 회장을 방문하여 필담(筆談)을 동원하여 시도해 봤으나 허사였다고 한다.

2. 2 한국대담회 창립·ICOLD 가입

ICOLD 가입 재도전은 전술한 첫 시도로부터 12년이 지난 1971년으로 넘어온다. 당시 대한토목학회(안경모 회장)의 국제학술단체와의 협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년 8월 16일 ICOLD 중앙사무국에 가입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자, 9월 15일에 국내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의 조직 및 정관을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답신이 온다.

토목학회는 1972년 10월 20일 동 추진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이하 수공)에 요청함에 따라 동년 10월 25일 안경모 수공사장 및 간부 8명으로 구성된 창립발기인 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초대 임원진을 구성, 사단법인 한국대담회(KNCOLD)가 창립된다.

- 회장(1명): 안경모,
- 부회장(2명): 조정규, 최영박
- 이사(15명): 김영택, 김경린, 이경보, 이정하, 이에민, 황찬백, 김경수, 신경식, 김영근, 최영택, 정주영, 노승욱, 안수한, 진병익, 신영기
- 감사(1명): 성락상

1972년 1월 4일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이어 1월 31일에 법인등기를 거쳐 한국대담회가 출범하게 된다.

한편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사무국으로부터 1972년 1월 10일자 초청서한을 받고, 안경모 회장이

단신으로 참석한 캔버라의 ICOLD 40차 집행위원회에서 동년 4월 18일 67번째 회원국이 된다.

2. 3 한국대담회 주요 일반사항

1) 정관의 변동

- 법인 명칭의 변동

한국대담회로 창립된 지 4년만인 1976년에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려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수문학회(현 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하라는 정부의 권유가 있었으나 설립취지가 상이함을 설득하여 무마하게 된다.

그러다가 1981년 새롭게 출범한 5공화국 정부의 지시로 한국대담학회로 명칭을 바꾸어 11년간을 본의 아니게 사용하다가 1992년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당초의 한국대담회로 복원된다.

- 임원의 수

회장(1명), 부회장(2명), 이사(15명), 감사(1명)로 출발한 본회는 활성화를 도모코자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정족수를 늘려가면서 신속성있게 변신한다. 1975년에는 이사를 17명으로, 1979년에는 부회장을 4인으로 늘리며, 수공, 한국전력(이하 한전), 농업진흥공사(이하 농진공)의 부사장과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운영하다가, 1986년에는 선출직 부회장(1명)을 추가하여 5명의 부회장을 두게 된다. 초대 선출직 부회장에는 김영택 이사가 선임되어 회장 부재 시 그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역할을 담당하다가, 1991년에는 선출직 부회장을 ‘학술담당부회장’으로 개칭하게 되며, 1992년 이원환 이사가 동 선출직 부회장이 된다. 이렇게 하여 5인의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5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의 체제로 2000년대로 진입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회장을 늘려 2008년까지 10~12인의 부회장 시대를 열다가,

표 1. 역대회장

구분	기간	성명
초대 회장	72. 2.~74. 1.	
2대 회장	74. 2.~76. 1.	
3대 회장	76. 2.~78. 1.	
4대 회장	78. 2.~80. 1.	안경모
5대 회장	80. 2.~82. 1.	
6대 회장	82. 2.~84. 1.	
7대 회장	84. 2.~86. 1.	
8대 회장	86. 2.~89. 1.	이희근
9대 회장	89. 2.~89. 5.	이상희
10대 회장	89. 5.~92. 1.	
11대 회장	92. 2.~93. 6.	이태교
12대 회장	93. 6.~95. 1.	이윤식
13대 회장	95. 2.~97. 2.	이태형
14대 회장	97. 2.~98. 2.	
15대 회장	98. 3.~98. 6.	임정규
16대 회장	98. 6.~00. 2.	
17대 회장	00. 2.~01. 3.	최중근
18대 회장	01. 3.~02. 4.	
19대 회장	02. 4.~05. 10.	고석구
20대 회장	05. 10.~06. 2.	
21대 회장	06. 2.~08. 2.	곽결호
22대 회장	08. 3.~08. 8.	
23대 회장	08. 9.~10. 2.	
24대 회장	10. 3.~12. 2.	김건호
25대 회장	12. 3.~13.12.	
26대 회장	13.12.~14. 2.	
27대 회장	14. 3.~16. 2.	최계운
28대 회장	16. 3.~16.10.	
29대 회장	16.10~18. 2.	
30대 회장	18. 3.~20. 2.	이학수
31대 회장	20. 5. ~22. 2	
32대 회장	22. 3. ~24. 2	박재현

2009년 3월부터는 수석, 기획, 기술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4인의 부회장,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의 체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시작하여 본인이 사무국장을 맡기 시작한 1987년부터 임기 3년의 수공 사장이 회장으로 추대되는 관례를 감안하여 이를 3년으로 하다가 1999년부터 다시 2년으로 조정되며, 2000년부터는 전무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수공이 부담한 사무국장의 인건비 절감을 명분으로 1981년부터 도입한 전임 사무국장시대가 20년 만에 끝나고, 수공 직원이 대신하는 겸임사무국장 체제로 다시 회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총회

예결산, 사업계획, 임원 변경 등 주요 회무를 의결하는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였으나,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1978년부터 매년 1월 중으로 개최하다가, 1996년부터 2월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역대 회장

안경모 초대 회장을 포함하여 11분의 회장이 32대에 걸쳐 봉직하고 있으며, 안경모 회장은 6대에 걸쳐 12년간의 가장 오랜 기간을, 이상희 9대 회장은 건설부장관으로 옮기면서 4개월의 가장 짧은 기간을, 또한 3대를 역임한 곽결호 회장은 22대에서 6개월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상의 임기를 감안하여 역대 회장의 재임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3) 명예회장 / 고문

1984년부터 한국대림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전직 회장 중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하여 이사회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으며 안경모 초대 명예회장을 필두로 역대 회장들을 추대하여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적이 현저한 전직 회장과 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이를 대체토록 하였다. 그러나 공적이 현저한 일반회원도 이사회에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토록 하는 기존의 '참여회원'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4) 분과위원회

1986년 11월 북한의 금강산담 건설발표에 자극된 한국대림회는 기술발전의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담 설계분과위원회', '담 수문 및 수리분과위원회', '담 시공 및 관리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하고, 1990년에는 '공유하천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우리나라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ICOLD 공유하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키로 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다음의 9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대로 진입한다.

즉, 수문 수리, 계획 설계, 안전, 시공, 운영관리, 환경, 홍보, 정책제도, 기획 분과위원회 등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조정하여 현재 기획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국제협력위원회, JEF(Junior Engineers Forum)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 회원

회원은 개인회원(당초에는 '보통회원') 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회원의 배가운동에 힘입어 1999년에 개인회원이 78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회비 미납과 심지어 신상변동조차 파악할 수 없는 회원이 많아지자 이들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종신회원으로 개인회원을 정리하고, 단체소속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회원의 개인회원의 참여폭을 넓히게 된다.

6) 예산 및 기금의 추이

창립 당시 100만원대의 일반예산은 회원 증가 등

표 2. 연대별 회원의 변동추이

연도	개인회원	단체회원	단체소속회원	비고
1972	54	-	-	
1973	73	6	-	
1978	105	10	-	
1982	213	13	-	
1992	289	18	-	
1999	781	20	-	
2012	309(※)	40	-	※ 종신회원
...				
2022	422(※)	45		※ 종신회원

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10년이 지난 1982년에는 3,000만원대로, 20년 뒤인 1992년에는 8,000만원대로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 현재는 5,000만원대가 되었다.

회비만으로 충당되던 일반예산 수입만으로는 어려운 ICOLD 참가 등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시작된 기금예산은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1987년에는 2,000~3,000만원대로 기억된다. 이는 수공이 발주한 댐 시공을 맡은 단체회원사에서 공사기간 중에 1개 댐에 대하여 연 1,000만원을 찬조토록 하였던 바 이는 그 당시 실로 거금이었다. 1992년에는 2억7,000만원 규모로 불리면서 2022년 현재는 9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댐 시공업체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또한 당시 이회근 회장의 불멸의 업적으로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로 연구용역 수탁 등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간다. 기금은 당시 보다 수익성이 보장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신탁에 정기저축형태로 키워지다 '90년대 후반에 불어 닥친 IMF 등 금융위기를 맞는 시련도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90년도 말에 5~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7) 사무국

태생적으로 수공으로부터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대담회는 서울에서 사무국을 개설하면서 ICOLD 가입 등 초창기를 다지다가 1974년 10월 수공이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국도 따라가게 된다. 그러던 중 그동안 산발적으로 대두되어왔던 사무국의 수도권 이전이 이윤식 회장의 부임으로 탄력을 받게되어 1994년에는 과천에 소재한 수도권용수사무소로, 1996년에는 새롭게 창립된 한국물학술단체와 함께 수공의 자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주)의 수자원빌딩으로 옮기면서 서울시대가 열

린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다시 대전 본사로 귀환하게 된다. 대전에 와서도 사무국은 K-water 본사와 K-water연구원을 오고가다가 현재는 연구원에 정착하여 안정을 찾게 된다.

사무국장은 창립 당시인 1972년 9월부터 1979년 1월까지 정회원 등 7명의 수공 공무과장이 겸임하였으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ICOLD 사무총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공 이사급으로 상향조정하여, 1979년 2월~1981년 2월동안 김여택, 주월동 등 2명의 이사가 겸임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되는 한국대담회의 업무영역의 확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임 사무국장시대가 열리게 되어 1981년 2월 김종천 초대 전임 사무국장이 부임하여 1984년 도쿄에서 개최된 52차 집행위원회의 Study Tour-Korea를 성공리에 실시하는 등 한국대담회 도약의 발판을 다지던 중 1986년 7월 오랜 투병 끝에 타계하자 반년 가까이 사무국장의 공석 중에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발표된 민감한 시기에 본인이 뒤를 이으면서 1987년 1월~2000년 2월까지 일급 분의 회장을 보필하면서 20년을 이어온 전임 사무국장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수공이 부담하던 전임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2000년 3월 전무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공 직원의 겸임 사무국장 시대가 다시 복원된다.

- 간사

사무국장이 이사급으로 승격된 '79년 2월부터 공무과장은 간사를 겸하면서 사무국장을 보좌하게 된다. '84년 5월부터는 토목1과장으로 변경되다가 직제개편에 따라 '89년 1월부터 댐건설1처의 토목부장이 맡게되고, 사무국이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이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장화일, 서득성, 송화영, 강중수, 송화영(再任), 김택구 등이 수고하게 된다.

- 사무직원

수공의 공무과 직원이 고유업무를 겸임하면서 1972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 행정 및 영문작업 등을 맡게된다. 그러다가 1977년 11월부터 한국대담회 예산으로 전임 사무직원 1인을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다.

특히 본인과 함께한 사무직원 중에서 다음의 몇 분에 관하여 회고하고자 한다. 1990년 10월부터 4.5개월을 근무한 연수정은 '91년 2월 수공의 사장비서실로 스카우트되어 간다. 같은 사장을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본인으로서의 사전의 귀뜸조차도 없었으니 섭섭한 마음이야 어찌 없었으랴... '92년 4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송인순은 '94년 사무국이 과천으로 옮겨갈 때, 대전을 떠나는 객지생활 등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함께하여 주다가 '96년 2월 결혼으로 사임하게 되어 감사패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 뒤를 이은 이화여대출신의 김영이는 5개월 만에 학업을 구실로 그만두게 되고 공개모집을 통해 면접을 거쳐 채용된 전직 은행원인 김미숙은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깔끔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99년 1월에 사무국이 다시 대전으로 옮기게 되어 아쉽게도 3년 만에 그만두게 된다. 그때 마침 수자원빌딩에서 같이 입주하고 있는 수우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전 출신의 김미정을, 당시 강희재 사무국장을 설득하여, 함께 대전으로 와서 본인은 1년 뒤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퇴임하게 된다. 그 뒤로도 그녀는 2003년 8월까지 5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한다.

2. 4 한국대담회 주요활동

2. 4. 1 ICOLD 활동

1) 연차회의 및 총회참가

1972년 안경모 회장이 단신으로 참가해 회원국이 되면서 1973년에는 3명, 1974년에는 2명, 1975년에는

는 1명(김여택), 1976년에는 4명, 1977년에는 1명(안경모)이 참석하면서 초창기에는 비교적 저조하였으나, 1979년 10월 25일~11월 2일에 인도에서 개최된 총회를 겸한 집행위원회에는 처음으로 두 자리수인 10명이 참가하였으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발생으로 안경모 회장은 도중에 귀국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80년에는 국민투표 등 비상사국의 사회적 분위기로 한국대담회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1984년(도쿄)에는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동반자 5인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하게 되며, 그 뒤로 동반자의 참석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간다. 그 후 1988년(샌프란시스코)에는 동반자 4인을 포함하여 30명이 참석한다. 1995년(오슬로)에는 총회가 아님에도 동반자 7명을 포함 33명이 참석하여 그때까지 가장 많은 참가자를 기록하면서 거의 10위권 내의 다수참석을 하면서 2000년대로 접어든다.

2) 논문발표

3년마다 열리는 기술총회에서는 4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제출받아 선택된 논문을 총회에서 직접 발표하며, 모든 논문은 총회 논문집에 수록된다. 그리고 지금의 연차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도 1987년(베이징)부터 개최국이 선정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1일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며 이를 관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대담회에서 발표한 최초의 논문은 1973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1차 총회에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명의로 발표하여 Q. 42-R50으로 논문집에 게재된 “Sand and Gravel Embankment in Winter Season in the Soyang Gang Dam”을 시작으로, 1976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12차 총회에서 역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안동댐 공사사무소의 명의로 제출된 “Development of New Core Material

in Zone Fill Dam Use of Decomposed Granite in Andong Dam”을 당시 안동댐 소장인 김종천 전 사무국장이 심포지엄에서 직접 발표하여 이의 효시가 된다.

1979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13차 총회에서는 각 주제마다 1개씩 4개의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며 학계출신의 논문발표자에게 참가비 등을 보조하고, 기관의 발표자에게는 ICOLD 회의에 참석토록 하는 장려책 등으로 198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16차 총회에는 무려 8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한 논문발표자이기도 한 선우중호 교수(당시 이사는 Q. 63의 논문발표회의 Vice Chairman(부 좌장)으로 활동하여 한국대담회에서는 최초로 총회 진행의 관계관(Officer)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이듬해인 198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오병환 교수가 처음으로 “Advanced Fracture Analysis of Concrete Dams”을 1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3) 기술분과위원회

ICOLD 기술분과위원회 참가시도는 1980년 이사회 의 의견을 모아 동년 3월에 저수지 퇴사, 댐 수리, 댐 설계 및 해석, 댐 건설기술 등 4개 기술분과위원회의 참가 희망을 중앙사무국에 신청하자 우선 2개 분과위원회의 참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사정으로 유일하게 참석지 못한 동년 10월에 개최된 40차 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되기에 이르며, 동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명단의 통보와 함께 다음해부터 참석을 요청해온다.

이렇게 하여 1981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41차 집행위원회에 윤용남, 선우중호 교수가 ‘저수지 퇴사’와 ‘댐 수리’의 2개 기술분과위원회에 각각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83년에는 전연욱

표 3. 기술분과위원회(2000년대 당시)

위원회	위원	비고
1. 댐 내진설계	전연욱/최영승(※)	※: 교체
2. 댐 비용	김선구	
3. 댐안전	이희승/유태성(※)	
4. 저수지 퇴사	윤용남	
5. 저수지 사면안정	홍성완/김상규(※)	
6. 댐 등록	이정웅	
7. 댐 및 기초거동 자동계측	고석구	
8. 댐과 홍수	선우중호	
9. 공유하천	이상면/이영우(※)	

이 ‘댐 내진설계’에, 1986년에는 김선구가 ‘댐 시공 기술’에 참여하기에 이르며, 한국대담회가 발의하여 설립된 ‘공유하천’에는 이상면 교수가 초대위원장으로, 1989년에는 이희승이 ‘댐 설계 및 해석’ 등 6개 기술분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90년대에 접어들어 일부 위원회는 수입받은 임무를 종료하고 소멸되거나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며, 일부 위원들도 사정에 따라 교체되면서 9개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면서 2000년대로 진입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여 분과위원회도 새로워지면서 현재 다음의 8개 분과위원회에서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이루며 활약하고 있다. 즉, 댐 수리(이순탁), 댐 내진설계(김형수), 댐 안전(임희대), 홍수평가 및 댐안전(전경수), 수력발전소 및 저수지통합운영(박명기), 기후변화와 댐 및 저수지(염경택), 댐등록(고덕구), 유역관리에서 댐의 역할분과위원 등이다.

4) 부총재 도전

한국대담회의 ICOLD 부총재 도전은 회원국이 된지 13년이 지난 1985년 스위스 로잔에서 총회를 겸하여 개최된 53차 집행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경모 회장은 당시 인도네시아의 회장인 M. Umar에게 첫 패배를 당한다. 이는 이듬해에 54차 집행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최가 확정된 당시의 여건에서 보이지 않은 프리미엄도 작용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1991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총회를 겸한 59차 집행위원회에서 6차석 부총재에 다시 도전한 안경모 명예회장이 상당한 표 차이로 브라질의 F. M. Budweg에게 다시 패배하게 된다. 6차석 부총재는 현 총재 출신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기에 경쟁도 심하거나 그간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대부분 차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술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경쟁자에게는, 당시 이미 74세인 안경모 명예회장으로서의 힘겨운 도전으로도 생각되지만, 한국대담

회로서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으며 새로운 전략과 젊은 인재의 양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3차 시도는 199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66차 집행위원회에 선우중호 교수와 함께 1981년부터 기술분과위원으로 활약하여 온 윤용남 교수로 바꾸어 또 다시 6차석 부총재로 출마하게 된다. 상대는 이란의 B. Farhangi이었으며, 지명도에 있어서는 윤용남 교수보다 낮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회원국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비교적 우리와 소원한 아프리카 지역의 짐바브웨의 수석대표에게 지지발언을 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였으나, 결과는 또 다시 3패를 당하게 되면서 구라파와 미주지역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된다. 변명 같지만 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란은 당시 '93년과 '94년의 집행위원회 유치에 실패하고, 또한 B. Farhangi는 1년 전인 '97년에 아시아지역 부총재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어 이에 따른 동정심리와 당시 이란의 활발한 개발사업의 수주에 관심이 많은 구라파 및 미주지역의 호응이 있었다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이미 6차석 부총재의 높은 벽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2000년에 있을 아시아지역 부총재를 겨냥한 전략적 출마의 성격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주효하였음인지 예상보다 늦은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72차 연차회의에서 드디어 오랜 숙원이었던 윤용남 부총재가 탄생된다.

5) 연차회의 및 Study Tour 유치

첫 번째 Study Tour는 1984년 도쿄에서 개최된 52차 집행위원회에 앞서 5. 22.~27에 걸쳐 실시했으며 21개국 95명이 참여한 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두 번째 Study Tour 역시 교토에서 개최된 총회를 겸한 80차 연차회의에 앞서 2012. 5. 28.~31에 5개국 20명이 참여하여 4대강사업 현장 등을 견학하게 된다.

북한은 ICOLD에 가입한지 2년이 되던 1990년 9월 1일 우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북한공동으로 '94년도 집행위원회의 개최를 희망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접수하였음을 중앙사무국이 우리에게 알려온다. 동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함께 열리게 되어있어 집행위원회도 어려운데 총회까지 함께 개최한다니 무모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던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그 뒤 1993년부터 ICOLD 집행위원회에 불참하게 되며 결국은 제명된 채 복권이 안 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북한의 이와 같은 돌출행동이 무엇을 노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간 조심스럽게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집행위원회의 한국 유치문제는 1997년도에 이르러 창립 30주년이 되는 2002년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기로 이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식화한다. 따라서 1997년 창립 25주년기념 학술발표회에 ICOLD 사무총장과 아시아지역 인도, 일본, 중국의 ICOLD 유력인사를 초청하기로 한다.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피렌체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에서 직접 초청 대상자를 만나 확인함은 물론, 본인은 사무총장실을 방문하여 2002년에 한국의 연차회의 유치희망을 피력하고 방한수락을 받아낸다.

또한 1999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67차 연차회의에서는 2002년의 한국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의 팸플릿과 태극선을 준비하여 우리의 유치의지를 표면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개최에 필요한 가칭 '한국의 댐'의 영·불어 발간작업을 수공에서 자체 산으로 발간하기로 공식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표보다 2년이 지난 2004년에 드디어 72차 연차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오랜 숙원이던 연차회의 유치와 부총재 역임을 일거에 이룩한 창립 32주년의 2004년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6) ICOLD 공유하천위원회 창설 및 배경

1986년 10월 21일 북한이 북한강의 상류지역에 금강산댐(임남댐) 기공식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는 인위적 댐 조작 또는 댐 붕괴로 인한 가공할 만한 수공(水攻)의 위협에 노출되자 한국대담회는 11월 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하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이때 김종천 전임 사무국장의 사망으로 인한 오랜 공백기간을 거쳐 사무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본인은 서류를 뒤적이며 업무파악을 해가면서 당시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인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될 55차 집행위원회 참가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하였다.

우선 ICOLD 중앙사무국에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중앙사무국으로부터 입수한 불어판 『금강산 댐 백서』를 번역하여 관계요로에 알리면서 국제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인식을 넓혀가게 된다. 그러던 중 1987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55차 집행위원회에서 가칭 '국제공유하천위원회'의 신설을 ICOLD 총재에게 문서로 건의하기에 이른다.

우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84 Study Tour-Korea 점검 차 1982년에 방문한 바 있던 J. Cotillon ICOLD 사무총장을 초청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베이징 집행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ICOLD 가입을 희망한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거쳐, 마침 서울에서 개최되는 WEC(세계에너지회의)의 참가를 겸하여 우리의 초청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그는 1987년 9월 방한하게 된다.

체재기간 중 WEC에 참석 중인 ICOLD 부총재를 역임한 태국의 B. Binson 과 함께 한국대담회 회장단과의 만찬회동과 낙동강하구둑, 판문점 및 땅굴 등

을 본인의 안내로 돌아보면서 북한의 위협과 우리가 건의한 '국제공유하천위원회'의 창설에 공감을 하고 돌아간다.

사무총장의 보고를 전해받은 G. Lombardi, ICOLD 총재는 1987년 10월 20일 우리 대담회에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국제공유하천위원회'의 신설을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동 위원장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88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총회를 겸한 56차 집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추천한 이상면 서울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하천위원회(Shared River Committee)'가 2년 한시적으로 출범하게 되며, 그 뒤 1년을 연장하여 3년 존치기간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된다.

이는 엔지니어의 배경이 아닌 법률학자가 위원장을 맡기로는 ICOLD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어서 1991~1997년까지 6년 존치기간의 상설위원회로 승격되어 아르헨티나의 E. Aisiks(전 ICOLD 부총재)가, 1997~2003년까지는 남아프리카의 C.P.R. Roberts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나라는 위원국으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이 위원으로 활약하였으나, 소임을 완수해서인지 현재는 없다.

2. 4. 2 지역 내 회원국과의 협력

1) APG(Asian Pacific Group) of ICOLD National Committees 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창립 25주년 기념 댐 기술심포지엄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J. Lecornu ICOLD 사무총장, C.V.J. Varma 인도대담회장(전 ICOLD 부총재), K. Baba 일본대담회 사무국장(후에 ICOLD 부총재 역임) 및 Zhang Jinsheng 중국대담회 부회장(당시 ICOLD 부총재)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마치고, 1997년 10월 10~11일에 걸쳐 낙동강하구둑 사찰과

경주관광에 나선다. 한국대댐회에서는 김계호 부회장, 윤용남 이사, 고석구 수공 낙동강사업본부장과 본인이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였다. 그때 투숙 중인 보문단지 경주현대호텔에서 저녁식사 후 로비에서 환담을 하던 중 당시 2년 전에 설립된 European Club과 같은 Asian Club의 설치에 인식을 같이 하는 이른바 “경주선언”을 하기에 이르고, 이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C.V.J. Varma 인도대댐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C.V.J. Varma 회장은 곧바로 아시아지역 회원국에 취지를 설명하고, 절대적인 호응과 지지를 바탕으로 다음해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66차 연차회의 기간 중인 1998년 11월 4일에 가칭 ‘Asian Pacific Chapter of ICOLD National Committees’에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네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부터 15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에 걸친 협의를 거쳐 회원국에 재정적인 부담없이 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출신 ICOLD 현직 부총재가 교대로 회장을 맡도록 하면서 인도대댐회장과 사무국장이 집행담당 회장과 사무국장을 무보수로 봉사하기로 하면서 우선 출범키로 한다.

이어 1999년 8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67차 연차회의 기간 중에 셰라톤호텔에서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명칭을 ‘Asian Pacific Goup of ICOLD National Committees’로 변경하여 지역 간의 정보교환 등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가 계획 중인 2002년 ICOLD 연차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참여국의 협조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2) EADC(East Asia Dam Conference)
2004년 창설되어 한국, 중국, 일본이 순차적으로 2년에 1번씩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4. 3 심포지엄 개최
창립 5주년이 되는 1977년 6월 25일 제1회 ‘댐건설 및 관리기술세미나’가 서울 전기회관에서 3개 주제로 진병익, 김치홍, 김양일이 발표한다. 토론자가 없이 진행되었음이 특기할만하고, 이튿날에는 청평 양수발전소와 소양강 다목적댐을 견학한다. 이듬해인 1978년부터는 토론자 형식을 도입하여 매년 개최하면서 1일 댐 현장견학을 거의 정례화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도 5~6개로 다양화되면서 1980년 제4회부터 1982년 창립 10주년 기념 제6회까지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전문가도 주제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이들 외국인은 A.D. McConnel(캐나다), J.S. Dodd(미국), W.H. Price(미국), G.Van Houweninge(네덜란드), J.C.Slagter(네덜란드), K.Wada(일본) 등이다.

’84 Study Tour-Korea의 준비와 실시로 1983년부터 3년간 개최하지 못하고, 1986년 11월 8일에 7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충주댐을 견학한다.

본인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시작한 1987년부터는 지금까지 사용한 ‘댐건설 및 관리기술세미나’를, 제8회 ‘한국대댐학회 학술발표회’로 바꾸어 1991년 제11회까지 개최하다가 1992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제12회 ‘댐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엄’으로 바꿔 개최한다. 이때 그간 공적이 많은 회원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안경모 명예회장에게 대상을, 고인이 된 진병익 교수와 김종천 전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학술상과 공로패를 미망인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매년 개최된 심포지엄은 1999년 제19회 댐 기술 심포지엄을 끝으로 2000년대로 접어든다.

특히 1997년 10월 9일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제17차 댐 기술 심포지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ICOLD 사무총장 및 아시아지역 주요인사 등 4인이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2000년부터는 ‘댐기술심포지엄’으로 명칭을 바꿔 거의 매년 개최하게 되며, 특히 2002년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2010년에도 국제 댐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다.

2. 4. 4 「Newsletter」/「회보」/「대댐회지」 발간
ICOLD 및 한국대댐회의 활동과 기술기사를 실은 「Newsletter」No. 10이 1976년 12월에 처음으로 발간된다. 매년 1~2회 발간된 「Newsletter」는 1980년 8호를 발간하고, 1981년부터는 ‘회보’로 이름을 바꿔 33호를 발간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의 발간이 아쉽게도 중단되다가 2010년에 ‘대댐회지(KNCOLD Magazine)’로 바꾸어 34호와 2011년에 35호를 발간하여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2. 4. 5 한국대댐회 기술분과위원회
1986년 10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공식화되면서 ICOLD 기술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력 제고의 필요에 따라 동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한국 대댐회 내에 3개 기술분과위원회의 신설과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위촉하여 1987년에 처음으로 기술분과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댐 설계 및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여택, 간사: 윤용남)
김상규, 최상기, 신동배, 이응천, 유태성
- ※ 댐수리 및 수문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원환, 간사: 선우중호)
고재웅, 이순탁, 윤태훈, 이종남, 안상진
- ※ 댐건설 및 재료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간사: 김선구)
황정규, 권기태, 강중수

그 뒤에 전술한 바와 같이 ICOLD에 공유하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활동을 지원코자 1990년에 다음과 같이 공유하천위원회가 추가, 신설된다.

- ※ 공유하천위원회
(위원장: 최영박, 간사: 이희승)
김계호, 이상면
- 그러면서 '90년대 중반에 다음과 같이 9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 ※ 수문 수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간사: 정관수)
- ※ 계획 설계분과위원회
(위원장: 고석구, 간사: 이명섭)
- ※ 안전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태성, 간사: 김상환)
- ※ 시공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지송, 간사: 이규환)
- ※ 운영 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강종수, 간사: 장기환)
- ※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심순보, 간사: 이요상)
- ※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문규, 간사: 김우구)
- ※ 정책 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 류영창, 간사: 김형렬)
- ※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 김계호, 간사: 이정웅)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음의 3개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 ※ 기획위원회(위원장: 엄경택, 간사: 김현식)
- ※ 기술위원회(위원장: 우효섭, 간사:김정곤)
- ※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류승하, 간사: 최동남)

2. 4. 6 포상

그간 한국대담회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회원의 포상을 특별한 행사에 맞추어 실시하여 왔다.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한다.

2. 4. 7 『한국대담회 20년사』 발간

1991년 8월 13일 김여택 당시 부회장 등 7명의 중진협의회에서는 이듬해의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에 의견을 모으고, 동년 10월 15일 심포지엄, 공로자 포상 등을 포함하

표 4. 포상현황(1974~2000)

시기	수상자	포상내용	비고
1974. 07. 12.	최영박	감사패	초대 부회장
1982. 10. 23.	김여택, 이원환, 진병익	표창	창립 10주년
	현대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감사패	
1992. 11. 13.	안경모	대상	창립 20주년
	이희근, 김여택	공로상	
	고 진병익, 선우중호, 윤용남	학술상	
	이성용, 김계호, 최상기, 박재규, 정인호	기술상	
	이경보, 윤석길, 한수은, 고 김종천	공로패	
1996. 01. 26.	이정국(대림), 유영철(동아), 조남원(삼부), 김정국(현대), 석학진(코오롱), 홍영하(삼안)	감사패	
	이태교, 이윤식	공로상	전 회장
	이원환, 윤태훈, 김상규	학술상	
	이희승, 유태성, 이응천	기술상	
	한전, 농지개발조합, 삼성, 쌍용, 도화, 유신	감사패	단체회원
1997. 10. 08.	송인순	감사패	사무직원
	이원환, 최영박, 신동열, 이종남, 황정규	공로상	창립 25주년
	고재웅, 신응배, 이순탁, 안상진, 이상면	학술상	
	김계휘, 김영하, 하진규, 김선구, 최중근, 이석우, 홍영하, 이지승, 정진우	기술상	
1998. 07.	극동, 선경건설, 금강종합건설, 한국수자원기술공단	감사패	
1998. 07.	임정규	공로패	전 회장
2000. 02. 24	이정웅	감사패	전 사무국장

여 ‘20년사 발간’을 추진키로 하고, 1992년 4월 8일 안경모, 이원환, 김여택, 이경보, 윤석길, 선우중호, 윤용남, 김선구, 이정웅이 참석한 발간추진회의 첫 모임을 갖고, 집필방향, 수록내용, 집필자 선정 등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4월 27일에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연말 발간을 목표로 하게 된다.

오랜 기억들을 되살리며 빛바랜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그간 쌓여진 2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대담회 창립부터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던 안경모 초대회장께서 집필 도중 휴대 중인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버린 해프닝이 일어난다.

이러한 와중에도 어렵게 작성된 모든 원고를 종합하여 감수, 보완하는 과정에서 병고 중인 김여택 전 부회장께서 모든 원고를 분실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된다. 호사다마라 하던가...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저장해 둔 자료를 다시 꺼내면 그만일 터인데... 따라서 예정대로의 발간을 단념하고 1994년 2월에 안경모 초대회장을 제외한 모든 집필자에게 다시 원고 집필을 의뢰하게 되며 동년 12월에 400여 면에 달하는 『한국대담회 20년사』가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발간된다. 항목별 집필자를 다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리고자 한다.

- ※ 한국의 댐 개관: 김여택
- ※ 한국대담회의 발자취: 김여택
- ※ '84 Study Tour-Korea: 이희승
- ※ ICOLD 기술분과위원회 참가활동 :
윤용남, 선우중호, 전연욱, 김선구, 이상면
- ※ 부록 및 편집: 이정웅

2. 4. 8 (사)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창립과 배경
1) 배경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는 국가 정책목표의 주요현안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하고 복잡다양한 물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대처함에는 수량, 수질 및 환경 등 관련 학제 간의 협력(Interdisciplinary cooperation)을 통한 전문지식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은 물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 간에도 이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적 뒷받침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공의 이태형 사장(한국대담회 회장)의 재정지원의 약속으로 9개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1996년 4월 19일 법인등기를 필하고 탄생하게 된다. 창립에 직접 참여하게 된 본인은 이를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창립과정에 있었던 사항들을 여기에 기술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2) 창립과정

1995년 10월 18일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대전의 수공 본사에서 이태형 사장(한국대담회 회장)으로부터 과천에 있는 사무국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대담회 기술심포지엄과 연말에 열리는 이사회에 준비에 관한 지시와 함께 물과 환경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학술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후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창립의 신호탄이 될줄이야-

2일 동안 그 시절의 유일한 전화와 팩스통신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관련 단체의 현황을 보고 받은 이태형 한국대담회 회장 수공의 재정지원으로 이들 학술단체의 협력과 연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가능성을 주요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 뜻을 본인

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원환 부회장은 관련 학술단체의 주요인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던 재정문제만 보장되면 기구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른다.

마침내 동년 10월 26일 15회 ‘땀 기술심포지엄’에서 이태형 한국대대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공의 재정지원 약속과 함께 한국대대회가 주축이 되어 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른다. 전화를 받고 일주일의 지나서다. 실로 숨 가쁘게 지나간 일주일이었다.

추진에 무게가 실린 동 현안은 이원환, 김계호, 선우중호, 윤용남, 이정웅이 참석한 11월 3일의 기획분과 위원회에서 조직을 법정단체인 사단법인으로 하고, 다음의 11개 관련 단체에 동참을 권유하는 기본방향에 정해진다. 즉,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환경학회, 대한상수도학회, 한국수질보전학회, 한국육수학회, 한국기상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지하수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대대회로 선정했다.

11월 6일에는 기획분과위원과 회장이 함께한 연석회의에서 전술한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그 후 11월 10일의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을 기획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에 이른다.

이에 기획분과위원회는 11월 22일 가칭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술단체연합회’로 의견을 모으고, 12명의 발기인 명의로 동참을 권유하는 창립취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위 발기인은 각 분야를 대표하여, 고재웅, 김계호, 김성순, 김수원, 박중현, 선우중호, 신응배, 신항식, 윤용남, 이원환, 최신석, 홍성길 등 12인이다.

이듬해인 1996년 1월 12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11

개 학술단체 중에서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질보전학회를 제외하고 참여를 희망한 9개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17명이 참석한 첫 번째 공식모임에서 창립에 따른 계획수립 및 이의 추진을 담당할 ‘주비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칭도 사단법인 ‘한국물관련학술단체연합회’로 바꾸기로 하였다.

주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원환 한국대대회 부회장을, 9개 학술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17명의 주위원을 선임하고, 각 학술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총무담당 이사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맡도록 하였다.

1996년 2월 8일 이원환 주비위원장이 주재한 실무위원회에서는 창립에 필요한 정관(안) 작성을 한국농공학회, 대한상수도학회 및 한국대대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3인 실무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창립발기인을 선정하게 된다.

드디어 4개월여의 준비 끝에 1996년 2월 29일 오후 5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4층 오펜룸에서 33인의 창립발기인 중 29명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진행을 맡은 본인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원환 주비위원장의 경과보고, 이태형 대대회장의 인사말과 발기인이기도 한 선우중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랜 심의 끝에 정관을 정하고, 명칭도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로 확정하며 회장단과 감사를 선출하였다.

회장에는 이원환 주비위원장, 부위원장(3인)에 김계호(한국수자원학회), 박중현(대한상수도학회), 서승덕(한국농공학회)을, 감사(2인)에 김영환(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과 강중수(수공 수자원연구소장)를 선임하였다.

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임된 17명의 이사에는 이태형, 최무웅, 이민성, 박영규, 박순웅, 최신석 등 6명의 당연직이사(학술단체 회장)와 고재웅, 선우중호, 김성순, 윤용남, 정하우, 배상근, 최정일, 신응배, 홍성길, 하진규, 최중근 등 11명의 선출직 이사를 선임하고 2시간여에 걸친 창립총회를 마치고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이원환 회장의 축배제의로 역사적인 연합회의 탄생을 자축하게 된다.

창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돌아오는 3월 22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연합회가 주최하도록 하기 위하여 3월 6일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정관 일부의 추가, 보완을 거치느라 4월 9일야야 설립승인을, 4월 19

일에 법원등기를 마쳐 공식출범하게 된다.

이태형 회장의 전화 지시가 있는 지 꼭 6개월만의 쾌거였다.

이렇게 하여 본인은 연합회 업무를 새로 부임한 강봉식 사무처장에게 인계하고, 한국대대회도 연합회 출산을 위한 대리모의 역할을 마감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과천의 수도권용수사무소에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이 있는 수자원빌딩에 갓 태어난 연합회와 함께 입주하기에 이른다.

연합회 창립의 발기인(33명)을 다음에 기술한다.

표 5. 학술단체(18명)

학술단체	회장	사무국장 / 총무이사
한국수자원학회	김계호	김현권
대한상수도학회	박중현	박주석
한국농공학회	서승덕	이상재
한국기상학회	홍성길	임규호
대한지하수환경학회	이민성	전효택
한국지하수학회	최무웅	박중관
한국육수학회	최신석	오희목
대한환경공학회	박영규	지재석
한국대대회	이태형	이정웅

표 6. 전문가(15명)

강중수, 고재웅, 김성순, 김수원, 김영환, 선우중호, 신응배, 신항식, 윤용남, 이상은, 이원환, 정하우, 최중근, 하진규, 한정상